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매우 평범하다. 나는 평범한 아들이었고, 평범한 남편이고, 평범한 아버지다. 그리고 평범한 소방공무원이다. 나는 그리 용감하지 않고, 나는 그리 정의롭지 않으며, 나는 그리 청렴하지도 않다. 나는 매 순간 선택에서 흔들리고, 나는 가끔 불의를 보면 눈을 질끈 감고 넘기기도 한다. 이런 나는 겁쟁이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고발한다. 알아도 말할 수 없는, 쉽게 끄집어 낼 수 없는, 뭔가 찝찝하고 금기어 같은 이야기를, 그 안에서 겁먹었던 나를 나는 말하려 한다.

그것은 내게 두려움이었고, 그것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였다. 그럼에도 쌀뜨물처럼 가라앉아 있던 기억을 휘휘 저어 본다. 그렇게 걸음으로 드러내야 하며 투명해져야 한다.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아픈 기억을 소환한다.

나는 늦은 나이에 소방공무원이 되었다. 전산 특채에 임용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 업무 정보통신 담당자로 일을 하였다. 임용 전 프로그래머로 7~8년간 일을 한 터라 소방공무원 정보통신 분야는 그리 낯설지 않았다. 잘할 수 있었다. 하루하루 바쁘고 기쁘게 일을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정보통신팀이 해체가 되고, 나는 소방행정과 경리팀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경리팀에서도 계속 정보통신 업무를 보며, 팀의 막내로 이런저런 잡스러운 일과 서무 일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리팀은 정보통신팀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 업무 중에 많은 업체 관계자들이 찾아오고, 각종 선물을 들고 오고, 자신의 회사와 계약을 해 달라는 청탁도 많이 들어왔다. 팀 회의도 공개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하는 것이었다. 뭔가가 구렸다. 공기가 사뭇 달랐다. 도무지 적응이 안 되었다. 나는 그리 곧고 정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분위기에 섞이지 못하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했다. 그때 같은 팀원인 최 반장(소방교를 반장으로 부름)이 나를 불러 끝나고 소주 한잔하자고 했다.

‘경리팀은 경리팀에서 해야 하는 일 말고도 남모르게 해야 하는 뒷일들이 있다’고 했다. 어리둥절하고 대체 무슨 말인지 들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최 반장은 나보다는 세 살이 어렸지만, 소방서는 몇 년 먼저 들어온 선배였다. 각종 장비와 공사 계약 업무의 베테랑으로 경리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엘리트 직원이었다. 우리는 가까운 동네에 살았다. 그렇게 같이 근무하고 같이 퇴근하고 같

이 저녁 시간을 보내며, 하루의 피곤을 소주 한 잔으로 달래며, 같이 웃고 같이 고민했다. 그럼에도 최 반장은 말 못 할 고민이 많았다. 업무량도 상당히 많았으며, 팀장, 과장은 그에게 중요 업무를 자주 시키는 것 같았다.

최 반장은 가끔 이렇게 말했다.

“일하다가 너무 놀라지 마세요. 비예산이니 하며 팀장님이 이상한 것을 주문하면 절대 못 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꼭요. 꼭 명심하세요.”

최 반장은 ‘명심하라’고 했지만, 나는 사실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 반장의 우려가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장 반장! 행정차 세차 좀 하러 가지.”

경리팀장이 갑자기 같이 행정차(소방행정과 관용차량) 세차를 하러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내 옆에 앉아서 일하고 있던 최 반장은 나를 한 번 쳐다보더니 시선을 돌렸다. 팀장이 세차하는데 왜 같이 가자고 했는지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자동세차 안에 들어서자 팀장이 말했다.

“우리가 업무 외에 또 어떤 일을 하는지는 들었나? 우리는 서장님을 모시는 팀이야. 곧 추석이 다가오고 비예산 들어갈 데가 많은데, 장 반장도 정보통신 공사를 계획하고 300만 원만 만들어 봐.”

그 비예산.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그 후로 팀장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다른 팀원들도 나를 멀리했다.

나는 모르는 척, 거절 아닌 거절을 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머리가 무거웠다. 잠을 못 잤다. 누구에게도, 가족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는 연거푸 물었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왜 그래요?”

“소방공무원 그만두고, 프로그래머 하면 안 될까?”

나는 어렵게 소방공무원이 됐다. 결혼하고 8년 뒤에. 아내는 기뻐서 많이 울었다. 그리고 그만두겠다는 말에 또 한번 말없이 울었다. 얼마나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만두겠냐 싶어 아내는 눈물로 말을 대신했다. 아내의 울음 앞에서 나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었다.

비예산 300만 원 얘기는 입 밖으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였다. 팀장의 영향력은 서 내에서 어마어마했다. 팀장에게 찍힌다는 건 회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이었다. 역시나 아무도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혼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최 반장이 다가왔다.

“비예산 얘기 하죠?” 최 반장은 이미 다 알고 나에게 물었다.

“300만 원 만들라고 하시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최 반장에게 솔직하게 말해 버렸다.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심장에서 돌덩이를 꺼내는 것처럼 후련해졌다. 최 반장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하지 마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꼴 나요”라고 말했다.

그 말은 참 솔직하고도 슬펐다. 나는 최 반장 덕분에 용기를 냈다. 두려웠지만, 팀장도 팀원도 싸늘하게 나를 대했지만, 나는 ‘안 한다’고 매듭지었다.

나는 그 후로 최 반장에게 의지하고 위로도 받았다. 최 반장은 ‘많이 후회된다’며 ‘소방서장에게는 관사라는 것을 제공해 주고, 그곳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관사 관리비는 예산으로 나오지 않고, 서장 차량 운행비용에서 하다못해 담배 심부름 비용까지 비예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옛날에는 예방과에서 같이 하였는데, 지금은 경리팀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였다.

‘수십 차례나 인사이동을 요구했지만 계속 잡혔고, 어느덧 그 일이 익숙해져 버렸지만, 괴롭다’고 최 반장은 나에게 고해성사를 하듯 털어놓곤 했다. 최 반장의 이야기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고발, 사건, 사고 같았는데, 최 반장이 그 속에 있었다. 그리고 힘들어했다.

그런 그에게 나는 들어주는 수밖에 아무 말도 해 줄 수가 없었다.

최 반장이 일종의 내 방패막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이었다.

최 반장이 제일 싫어하는 글자는 ‘청렴, 근면, 진실, 성실’이라고 했다. 이런 글자를 보면 자신이 너무 싫어진다고 했다. 이미 그렇지 않은 세상을 너무 많이 보았다고 했다. 모든 세상사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심이 가더라고 했다.

“절대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서장, 과장, 팀장. 크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최 반장은 날마다 후회했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다. 최 반장은 늘 내 곁에 있었다. 최 반장의 가깝고도 먼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다.

나는 서 내에서 제대로 찍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버둥버둥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팀장의 힘을 좇지 않았기에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나는 더 단단해졌다.

‘까짓, 괜찮아! 버티!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주문을 외웠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다. 드디어 경리팀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나는 너무 기뻐했지만, 내가 의지하던 최 반장도 팀장과 같은 소방서로 발령이 나 버렸다. 팀장은

최 반장을 데리고 갔고, 최 반장은 거절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를 싫어하던 팀장과 내가 좋아하던 최 반장이 떠났고, 1년쯤 지났을 쯤의 어느 일요일 아침에 최 반장에게 전화가 왔다. 집 앞으로 갈 테니 잠깐 나와 달라는. 주차장 앞에 나갔을 때 최 반장은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얼굴이 굉장히 핏색해 보였다. 반갑게 그를 맞이하는데, 최 반장이 갑자기 울었다. 나는 차 안에서 계속 최 반장이 우는 것만 바라봤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팀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다’고. 최 반장은 내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그게 최 반장을 본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3일 뒤 최 반장은 세상을 등졌다.

최 반장이 죽고 난 후 소방서 본부 감찰과 경찰서에서는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때 근무한 팀장, 서장은 해임을 당하고, 수십 명의 담당자들이 중징계와 사표를 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나는 한동안, 지금까지도 힘들다. 왜 나는 그의 눈물 앞에서 들어주고만 있었을까. 나는 왜 최 반장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최 반장을 말리지 않았을까. 왜 바라만 봤을까. 최 반장을 왜 그대로 보내야 했을까. 다 알면서 나는 왜 더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그때 고발하지 못했을까. 나는 겁쟁이였고, 나는 비겁했다. 나는 아직까지 최 반장을 내 안에 묻고 매 순간 그의 말을 떠올린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흉터처럼 남아 있다. 나는 그의 눈물을, 그의 잘못된 선택을, 그의 끝없는 고통과 후회를 기억한다.

나는 평범한 아들이었고,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평범한 소방공무원이지만, 이 평범함을 평범함으로 지키기 위해 나는 앞으로도 더 옳은 선택을 할 것이다. 두려워도 용기를 내서 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나는 그래도 정의로운 편이고 도덕적인 편이다. 나는 보통의 편이고 상식의 편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말할 수 없었던 것, 그때는 침묵하고 묻어 두었던 것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도 여전히 편법이 있고 불공정한 사회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나는 두렵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기도 하지만, 상처받지 않은 건강한 사회이기도 하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다.